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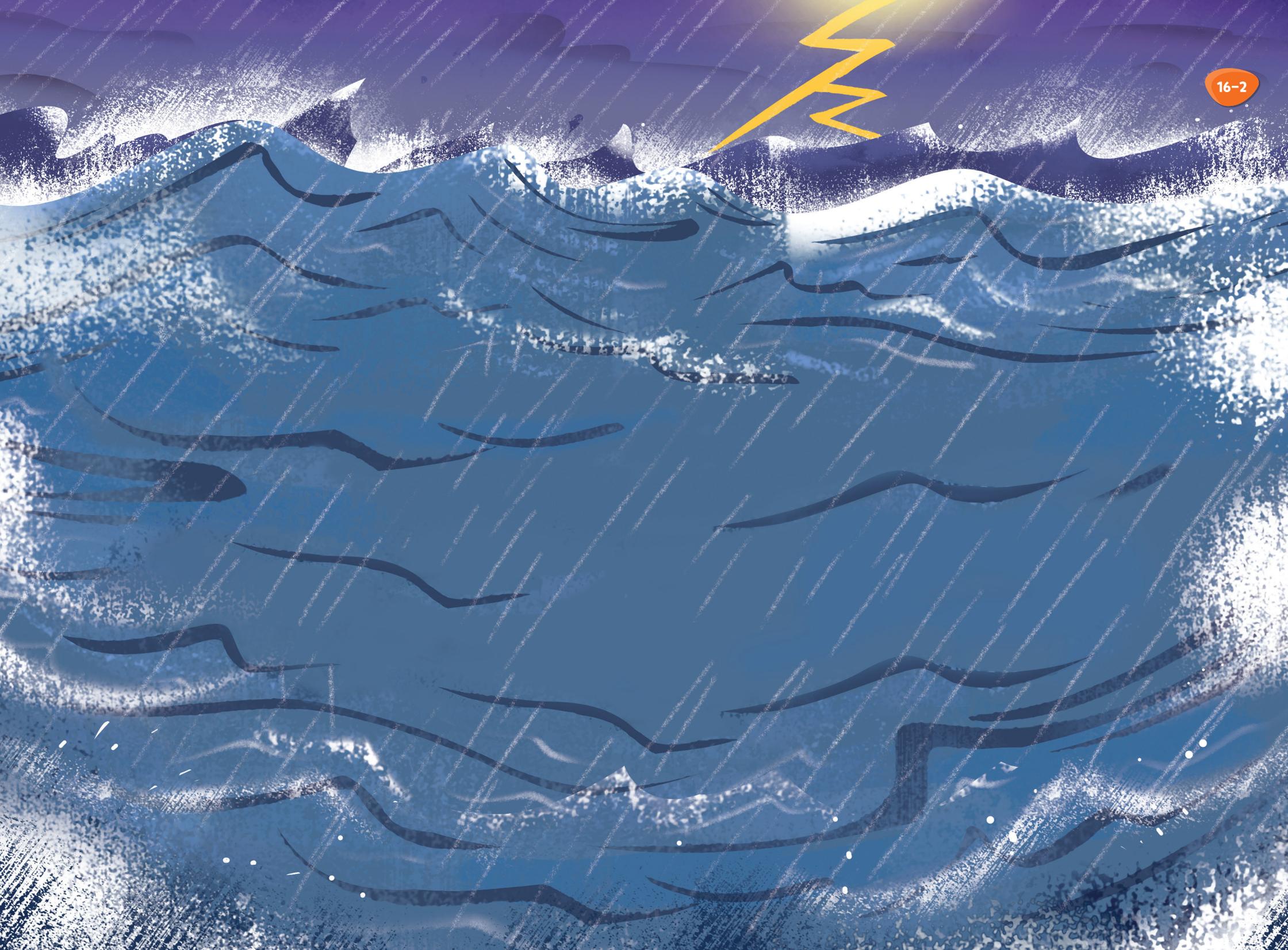


16-1



(16-1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했어요. 바다는 잔잔하고 고요했어요.





(16-2를 보여주고,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좌우로 조금씩 흔들며) 그런데 갑자기 아주 강한 바람이 뿜뿜 불어왔어요. 큰 파도도 철썩철썩 치기 시작했지요.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좌우로 크게 흔들며) 배는 점점 더 심하게 흔들렸어요. 어느새 배 안에는 바닷물이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대답을 듣고,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모두 죽을 수도 있겠어!”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서둘러 깨웠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 어서 일어나보세요! 거친 파도 때문에 모두 죽을 것 같아요.”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뒷면으로 돌려, ‘꾸짚으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여주며)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힘 있는 목소리로) “바람아, 파도야! 모두 잠잠하여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16-3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다는 아주 고요해졌지요.

예수님은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무서워했던 거예요.

“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은 서로에게 물으며 놀라워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해진 거예요.